북한 핵보다 더한 메시아 위협

(시편 2:1~12)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북한 핵보다 더한 메시아 위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북한 핵보다 더한 메시아 위협'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위협을 느끼고 그 위협을 넘어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 믿음은 성립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신데 왜 위협을 느껴야 한다는 것일까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에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북의 김정은이 ICBM을 완성단계에까지 이르게 함으로 인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성격이 안하무인이고 예측불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40%가 미국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는 집단을 북한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신앙에 접목해봅니다.

내 인생의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고 물으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답이 90%는 넘어야 합니다. 적어도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은 다인종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70%는 메시아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최대 위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 개인에 대해 갖는 위협의 정도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 쏘아올린 ICBM보다도 더 우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

인 자들과 같은 정도의 위협을 느끼되 그것을 넘어서야만 믿음은 성립합니다. 이러한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핵무기보다도 메시아에게 위협을 느껴야 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에서 일곱 편의 시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 일곱 편의 시중에서 첫 번째가 본문의 2편입니다. 표현상으로는 다윗 언약에 입각해서 왕가의 정통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영광의 왕이신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3절까지는 메시아를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4~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으로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7~9절에서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철장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12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게 입맞추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해야 하고, 입맞춤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1~3절까지 읽다보면 그러려니 하다가도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는 기름부음 받으신 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미션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하겠다고 오는 구조요원을 대적하고,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와 세상 사이에는 왜 이러한 대결구도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기름부음 받음의 의미 속에 이 대결의 이유를 밝힐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부음 받음을 어떠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기름부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기름부음 받음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본다면 사람들의 머리가 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도 마음의

흐름을 하나님께 보내며 마음의 흐름을 유지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만 마음을 하늘로 보내고 유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메시아의 마음의 수직적 흐름을 예표로 성취한 자가 다윗이었고 다윗 왕가의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이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수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꼭 한 가지만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돈을 붙잡고 자녀를 붙잡을 수도 있고 마음을 문어발식으로 수평적으로 뻗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통째로 하늘을 향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는 것이 기름부음 받음의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의 연결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허락되었기에 필요할 때마다 능력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과 연결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능력이 스트리밍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흐름이 하늘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름부음인데 왜 세상과 대적이 됩니까?
내 마음은 갈래갈래 나뉘어서 문어발식으로 이 세상의 돈도 붙잡고 가족도 붙잡고 사업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고 수평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수평적 흐름과 예수님의 수직적 흐름은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재산을 붙잡고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직적 흐름과 부딪혀서 둘 중에 하나는 끊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볼 때에 위협을 느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정치적인 이유로 빌라도가 모반사건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도 문어발식으로 수평적 마음의 흐름을 흘려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마음의 흐름을 유지하시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존의 삶의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면 끊어지고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4~6절을 보면 그러한 대적함을 효과 없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감히 인간이 하늘로 향하는 그 흐름을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수직적 마음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유지하는 상태를 끊을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육체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수직적 마음의 흐름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흐름이 이 세상에서는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보면 이 흐름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대상들을 향해 수평적 마음의 문어발들이 끊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우상화했을 뿐입니다.
새신자들을 교육할 때에 제일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좋아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기쁨이 되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털어놓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문어발식으로 뻗어있던 수평적 줄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는가에 대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7~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 같이 깨뜨리신다'라고 하니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메시아 왕국을 만드시고 통치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러한 의미로만 쓰였다면 우리는 그 왕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은 판타지영화 같은 장면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체가 이미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종말론적인 메시아왕국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영역은 메시아왕국이 되어야만 하는데 철장으로 질그릇을 치면 박살이 나는 것처럼 깨뜨림이 나타납니다. 핵무기가 터지면 삶의 환경이 가루가 되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은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것을 가르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겠는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수평적으로 뻗어있던 문어발 상태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며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있지만 메시아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님의 수직적 마음이 칼날이 되어서 수평적으로 사업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의 팔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 같이 부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실 때에 깨뜨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각관계에 근거한 시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앞서 욥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마음으로 재산과 자녀와 명예 등을 소중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아도 주어지는 것들을 자연스레 마음이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수평면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붙들었다가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난 뒤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질 수 있는 관계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며 위협을 가해옵니다. 그러나 ICBM보다 더 무서운 위협은 메시아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메시아에게 입 맞추라'고 하십니다.
옛날 중동 땅에서의 입맞춤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에 입을 맞추거나 손에 입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발에 입맞춤을 할 때에는 복종을 의미하고, 손에 입맞춤을 할 때에는 경외(존경)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발에 입맞춤하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메시아를 기억하는 것이고, 손에 입맞춤하는 것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메시아를 먼저 기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선시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수직적 마음의 흐름이 칼날이 되어서 나의 수평적 일들이 끊어져나가게 됨을 뜻합니다. 이 수직적 마음의 칼날이 또한 우리의 길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므로 12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수평으로 마음의 손을 뻗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곧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은 자동적으로 수평적 마음의 손을 뻗게 됩니다. 자녀를 보면 자녀에게 마음이 뻗어가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으로 마음이 뻗어갑니다. 그러므로 입맞춤이 의미하는 대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손에 입 맞추면서 사업장에서 먼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에 사업장으로 뻗어가려던 수평적 마음이 잘라져 나가고, 수평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포위되고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갔던 그 길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계획이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면서 내 삶의 공간에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위협적인 분이십니다. 이 위협적인 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끊어짐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시듯이 내가 수평적 마음으로 붙잡았던 삶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깨져 나갈 것입니다. 핵폭탄이 터져서 가루가 되기 이전에 이미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떨어져나가고 깨어져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매일같이 살아나서 수평적으로 움직이면서 세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주님의 손과 발에 입 맞추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

다. 그러고 나면 주님의 수직적 마음이 칼날이 내 마음의 문어발식 수평적 마음을 잘라내시고, 잘라진 다음에는 수직의 칼날이 변하여 길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김정은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더 우선적인 위협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그 위협 너머에 절대 평강의 나라가 있고, 또한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에덴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위협임을 알고 위협의 언덕을 넘어서 마련되어 있는 평강의 에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